

선의 율동과 동양적 감성 되살린 그림책들

어린이책 그림의 새로운 경향



그림책이 전체 어린이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 안팎이다. 꽤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그 20%가 대부분 번역물로 채워지고 있다. 일부 번역 그림책은 단 몇 개월 만에 똑딱똑딱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자기 길을 걸어온 작가들과 새로운 형식을 실험하는 움직임이 있어 눈길을 끈다.

연필선 살린 스케치가 새로운 장르로 자리잡아

최근 일러스트레이션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흐름은 대략 네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기존에는 밑그림이란 인식이 강했던 스케치가 독자적인 일러스트레이션 장르로 자리잡은 점이다. 김환영은 《종이밥》(김중미, 낮은산)에서 연필선과 펜선의 느낌을 살린 모노톤의 그림에 물감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달동네의 신산한 삶을 우화적으로 잘 잡아냈다. 김경숙·고경숙의 최근작 《똥줌오줌》(재미마주)은 동네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아이들의 진솔한 모습을 훈훈한 정감이 넘치는 스케치에 담았다. 김유대의 《들키고 싶은 비밀》(황선미, 창작과비평사)도 경쾌한 드로잉 느낌이 살아 있는 연필 그림으로 주인공들의 행동과 표정 하나하나를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송진현의 《아기 너구리네 봄맞이》(권정생, 길벗어린이)는 단색의 연필로 무수한 선을 쌓아가면서 겨울을 나고 봄을 맞이하는 산의 잔잔하고 미묘한 변화를 잘 잡아냈다. 이혜리의 《비가 오는 날에》(정병규, 보림)도 주목할 만하다. 모노톤의 선화에 아주 조금씩 색감을 얹어 액센트를 줬는데, 색과 선을 절제해 도리어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끌어낸 것이 이 책의 매력이다.

사실적인 동양화기법을 살린 그림들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판타지 동화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김재홍의 《고양이 학교(전5권)》(김진경, 문학동네)는 고양이들의 눈빛 하나, 터럭 하나까지 사실적으로 담아냈다. 신인 작가 가운데는 제주도의 풍경을 한지 위에 살려낸 박지훈의 《어머 어디 감수광》(예림당)을 꼽을 수 있다. 터치가 굵은 수묵화에 동심을 담은 사석원의 《방귀에 불이 붙을까요?》(김영환, 김영사)도 눈길을 끈다. 최근의 이런 경향에 대해 마루벌의 이명희 이사는 “캐릭터 중심의 만화적이고 도식적인 화풍이 최근에는 회화풍으로 바뀌고 있다”며, “다양한 그래픽, 현대적인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에 자연과 생태 중심의 사실적인 그림들은 자칫 아이들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흔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작가관 아쉽다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신인 작가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씹던 껌을 주물럭거리 만든 ‘껌딱지군’, 머리에 알약을 박은 ‘달콩이’ 등 컬러화보 속에 펼쳐지는 유쾌한 인물들과의 만남이 인상적인 함진의 《달콩이의 이상한 하루》(조은수, 돌베개어린이), 에칭작업을 통해 다양한 질감을 표현한 이가경의 《커다란 커다란 이야기》(정해왕, 웅진출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허무는 몽환적인 터치로 지하철의 세계를 담아낸 황은아의 《지하철 바다》(마루벌)는 모두 익숙한 일상을 새롭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만화형식을 응용한 그림 속에 푸근하고 익살스런 이야기를 담아낸 한성옥의 《수염 할아버지》(보림)도 인상적이다.

생태그림책 분야에서는 단연 세밀화를 꼽을 수 있다. 《나무도 감》(손경희 외), 《어린이 들살림》 시리즈(도토리 외) 등을 그린 이제호, 《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식물도감》(편집부), 《심심해서 그랬어》(윤구병, 이상 보리) 등을 그린 이태수씨가 세밀화기법을 통해 주변 사물이나 자연생태를 담아낸 대표적인 작가다. 과학그림책 분야에선 《내가 병을 이겼어요》《살아 있는 지구의 얼굴》(이상 김동광, 아이세움) 등을 그린 이형진씨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지식책 분야 그림책들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아이세움 황현숙 아동출판팀장은 “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과학그림책이나 정보그림책 등 지식책 분야는 거리는 경향이 있다. 하루 빨리 지식그림책 분야가 세분화·전문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창작 그림책을 바라보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어린이도서연구회 그림분과위원회 이성실씨는 “눈에 띄는 새로움은 없다. 시장이 과열되면서 출속작이 출간되는 등 오히려 산만해졌다”고 분석한다. 김영사 박숙정 아동팀장은 “신인을 키우고 싶은 생각은 많지만, 텍스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화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놓는다. 길벗어린이 고대영 주간은 “아직은 그림책 시장이 번역물 중심이다. 좀더 많은 창작 그림책들이 나와야 그림책의 경향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재미마주 이호백 대표는 “작가의 세계관, 어린이의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도 살펴야 한다”며, 쉽사리 상흔에 휩쓸리지 않는 확고한 작가관이 아쉽다고 말한다. —박옥순기자